



People

신해신-美[산재근로자가 전해주는 진한 삶의 아름다움(美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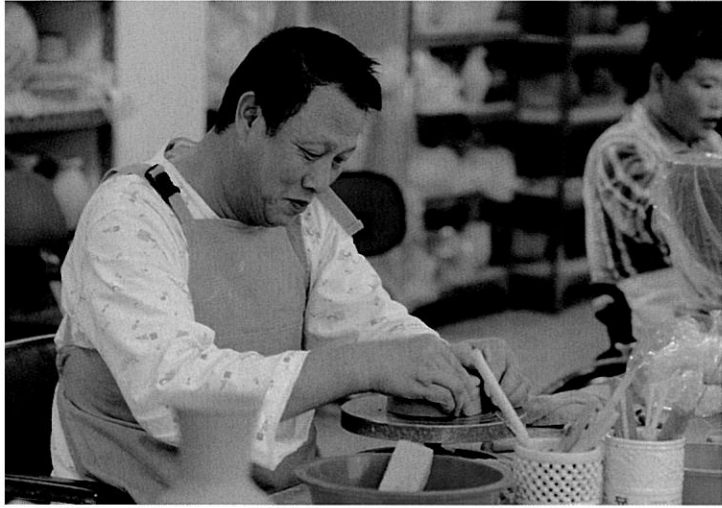
“한 순간의 실수가 생명을 좌우합니다”

강성오 씨

취재 연습기 기자 skyway@safety.or.kr

2006년 10월 1일 오후 1시경 인천의 어느 시내 도로. 두 대의 차가 엉겨 붙어 있다. 차량의 잔해가 주변 도로에 퍼져 있다. 차량 모두 반파될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다. 사고 차량 중 하나인 트럭의 운전석에서 신음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. 트럭 운전석에 끼어 빠져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.

운전수는 온 몸을 파고드는 교통에 타명을 멈출 수가 없었다. 그는 잠시 뒤 도착한 소방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. 병원에 도착한 후 그는 곧바로 수술대에 올랐다.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그의 다리는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. 반나절의 수술 끝에 다행히 그의 다리는 형체를 건질 수 있었다.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. 그로부터 3년간 항암 수술이 이어졌고, 결국 그는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나서야 조금이나마 걸을 수 있게 됐다. 사고가 난지 6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강성오 씨(53)는 그날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.



잊을 수 없는 그날의 사고

강성오 씨는 1993년부터 인천의 한 식품회사를 다녔다. 그가 맡은 일은 식품 운송 및 영업이었다. 하루 종일 트럭을 끌고 거래처를 방문해야 하는 일이기에 그의 동료 대부분은 한두 번쯤 교통사고의 경험이 있었다. 하지만 그는 타고난 성실함과 조심성으로 인해 운송업을 13년이나 하면서도 자잘한 사고 한 번이 없었다.

헌데 사고 난 그날은 마치 무엇에 홀린 듯 마음이 급했다.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잠시 쉬려고 휴게실 문을 연 순간, 오늘 까지 수금을 할 곳이 있다는 생각이 불현 듯 떠올랐다. 바로 실 생각을 접고 다시 차에 올랐다. 맡은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다.

얼른 일을 끝내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 평소 그답지 않게 급히 운전을 했다. '조급함'이라는 단 한 번의 실수가 불러온 대가는 참혹했다. 사고 후 그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후회 속에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다. '앞으로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을까'란 생각에 잠도 이룰 수 없었다. 채 2시간도 못자는 날들이 사고 후 반년 동안이나 이어졌다.

“내가 받은 용기 꼭 다시 베풀 것”

밥을 먹고 약을 먹고 잠을 자는 무료한 생활이 반복됐다. 말 수도 점차 줄어들었고 표정은 굳어갔다. 그러던 와중에 병원에서 통근치료를 받던 산재근로자 한 명이 그에게 다가

왔다. 그 환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컴퓨터와 금속 공예, 자기 공예 등의 재활치료를 함께 받을 것을 권유했다. 이에 그는 망설이며 재활치료에 참여했다.

호기심 반 재미 반으로 찾은 그곳에서 그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. 자신과 같은 산재환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을 본 것이다. 그곳에는 다리가 없는 분도 있었으며 손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.

“늘 제 처지를 비판만 했어요. 하지만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. 장애라는 이유로 삶을 멈추기엔 아까운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”

강성오 씨는 현재 퇴원을 해 직장을 다니고 있다. 완치가 된 것은 아니다. 통증이 심해지면 종종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할 때도 있다. 그러나 그는 예전처럼 비판하지 않는다. 자신이 받은 용기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. 이 사회를 비추는 등불이 되겠다는 그의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이 될지 기대된다. ☺

미니 인터뷰

“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”



제가 사고를 입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'방심'입니다. 10여년 넘게 늘 해오던 운전이었고, 자주 갔던 곳이었기에 마음을 놓았던 겁니다. 항상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때 '한 순간의 실수가 생명을 좌우한다'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, 그때 난완 늘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었습니다. 하지만 사고를

겪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. 작업을 하거나 근무 중일 때는 꼭 일에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